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10~120주년
포어

함께 하는 생명의
장막을 넓히자

1963년9월20일 第3種郵便物認可 (毎月一日発行)

2024년 3월 1일 (금) 제 836 호

발행처 **복음신문사** (1부 100엔)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03-3202-5398 info@kccj.jp

발행인 / 양영우 · 편집인 / 정수환

인쇄소 靑丘文化社

부활절
설교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기쁨

<마태복음 28:1~10>

김성언 목사 (토요하시교회)



십자가형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모욕과 굴욕, 갈증과 고독, 육체적인 극심한 고통이 시간을 들여 조금씩 조금씩 생명을 갉아먹게 만드는 정말로 잔인한 사형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형은 정치범이나 도망친 노예, 반란자, 그리고 극악한 자들에게 처해졌으며, 끔찍하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본보기로 보임으로 로마는 유대인들이 제국의 지배와 제도에 반발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슬프 가운데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와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다시 지독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을 구원하여 주시지 않을까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비극적인 영화를 보다보면 때론 주인공에게 정말 아무런 구원조차 없는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숨을 거두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것만큼 정말 지독한 결말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에게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리는 엔딩 크레딧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것에 대한 깊은 죄책감이 덮쳐옴과 동시에 “네의 인생은 모두 끝났어” 라는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죽음을 충분히 슬퍼하지도 못하고 급히 장례를 치뤄야했습니다. 안식일은 보통 금요일 일몰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오후 3시경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일몰인 6시까지 약 3시간 정도 밖에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율법 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속히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해야 했습니다. 이 때,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였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아리마대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장사할 수 있게 요청을 했고 허락을 받았으며, 본래 자신이 들어가기로 했던 무덤에 무사히 예수님을 안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시종일관 지켜보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음날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으로 인해 무덤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무덤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무덤에 안치된 예수님의 시신에 정성껏 장사지내기 위해 향품도 구입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매몰된 다른 남자 제자들이 집에 처박혀 문을 걸어 잠그고 한 발자국도 밖에 나가지 않고 있었지만, 자신들은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슬픔을 던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동굴에 도착하자, 갑자기 강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 무덤의 돌을 치우고 그 위에 앉았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내려왔다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침묵하셨고 예수님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이날 아침, 갑자기 임하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놀라있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함께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에 놀란 여인들은 무덤을 떠나 제자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예수님과 만납니다. 예수님은 “잘 있었느냐? 평안하느냐?” 라고 인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인사는 헬라어 원문은 ‘카이레테’ 라고 하는데, ‘기뻐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셨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부활은 예수님 본인의 부활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전설 같은 옛날 이야기나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의 부활로 이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과 이어진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은 몸이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한 나사로와 아이로의 딸도 결국 언젠가는 다시 죽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한 부활과 다른 영원한 부활을 이야기하며, 우리들이 하늘에서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을 버리고 배신한 약하고 죄많은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형제자매들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뻐하라” 는 그 말씀을 나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매달리시던 십자가는 오로지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증거로서 십자가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십자가에 담겨진 의미를 잊고 살아갑니다. 아니, 우리들조차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십자가 자체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담겨진 뜻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절망과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생명과 부활의 상징의 증표로 삼아주셨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활을 기억하고 참된 소망을 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는 신앙을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福岡教会

임명기목사 위임식 거행 白鷗大법대 졸업후 同志社신학부 졸업

2024년2월25일(주일), 서남지방회 후쿠오카교회에서는 임명기목사의 위임식이 거행되었다.

예배는 임시당회장 김성효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설교는 신치선목사(후쿠오카중앙교회)가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분들에게> (빌 1:8-11)의 제목으로 하였다.

목사 위임식은 서남지방회장 신치선목사의 사식으로 진행되어 서기 조현규목사의 소개가 있던 후, 위임서약 및 기도후에 임명기목사가 후쿠오카교회의 담임목사가 된 것을 선포하였다.

금번 서남지방회로부터 후쿠오카교회의 목회를 위임받은 임명기목사는, 1972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1995년 독일하여 하쿠오(白鷗)대학 법학과, 동지사대학 신학부 및 신학연구과를 졸업한 후, 2013년에 관서지방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 교토교회 전도사 및 담임목사로 섬겨왔다.

가족은, 박강자 부인.



관서지방회

한일교회 합동예배 개최 일본기독교단 오사카교구와 합동으로

2월 25일 오후 3시, 일본 기독교단 덴마교회에서 「제10회 오사카한일 교회 합동 예배」가 있었다. 매년 이 시기에 실시되고 있는 제일 대한기독교회 관서지방회와 일본기독교단 오사카교구와의 합동예배로, 이번 합동예배는 제일대한기독교회 관서지방회측이 진행을 맡게 되었다. 1부 예배에서는 선교협력부장 김중권 목사가 사회를, 관서지방회장 박영자 목사가 열왕기하 11:1~3의 본문으로, '두 여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 아름다운 멜로디의 관서성가대연합회의 특별찬양(내 평생에 가는 길)이 있어, 합동예배의 은혜는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었다.

성찬식 사식은, 일본어(아마자키미찌교목사)와 한국어(김무사목사)로 거행,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빵과 포도주의 성찬식 배찬에 있어서는, 관서지방회측에서는 김금순장로와 황문석장로가 담당하였다. 이날 헌금은 노토반도 지진피해 지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2부 시간에서는 교회1층에 마련된 다과를 나누면서 합동예배에 참가한 각 교회들의 소개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 인원수는 98명이었다. 한일교회 합동예배를 통해 교제뿐만 아니라, 선교협력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모색을 기대해 본다.



전국여성회

제25회 성서세미나 개최 広島평화기념공원에서원폭희생자추도

제25회 성서세미나가, 전국교회여성연합회(교육국)와 서부지방교회 여성연합회의 공동 주최로, 2024년2월12일(월/휴)-13일(화)에 개최되었다. 연인원 78명의 참가자였다.

첫째 날은 히로시마 교회에서의 강연, 둘째날은 평화기념공원에서 필드워크가 주된 프로그램이었다.

강연은 <주님께 접붙인 바 된 자로서>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를 테마로, 이상덕목사(미요시교회)의 말씀이었다. 성서에 근거하여 평화의 의미를 고찰하고 우리는 그 평화의 도구로서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를 고민했으며, 그룹 활동을 통해 생각을 공유했다.

필드워크는 나카에요이치목사(히로시마 교회)의 설명과 함께 평화 기념 공원의 걸으며 원통하게 잃어버린 많은 생명들을 추모했고, 마지막으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탑 앞에서 '당신의 평화'를 함께 노래하며 폐회 예배를 드렸다.

처음으로 참가하게 된 참가자는 과워풀하고 생기 있는 여성의 모습을 직접 보게 되었다. 특히 친목회는 지방회의 찬양과 촌극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성서 세미나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다음 번에는 꼭 참가해 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교토남부교회 유수미)



총간사 한국 협력교단 방문 6교단과 인사와 선교 과제 등을 나누다

총간사 정수환목사가 지난 1월29일~2월1일까지 한국을 방문하여 선교협약을 가지고 있는 교단과 협력기관 등을 방문하고 왔다.

전 총간사 김병호목사가 동행한 이번 방문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KMC), 한국기독교장로회(PROK), 대한예수교장로회(P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미국장로교회(PCUSA) 동아시아선교회, 연합감리교회(UMC)의 그로발 미니스트리(GBGM)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인사를 나누며 선교의 과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금번 스케줄이 맞지않아 방문하지 못했던 교단은 다음 기회에 방문하기로 했다.



김원치원로목사가 소천 오사카니시나리교회葬으로 장례식 거행



제31회 총회기(1975년~1977년) 총회장을 역임한 재일대한기독교회에서 마지막 원로목사였던 김원치목사가 지난 2024년 2월 6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오사카니시나리교회에서 교회葬으로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고 김원치목사는 1922년에 함경북도 명천군에서 태어나, 1941년에 도일. 1943년에 일본 기독교단 마츠야마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1947년에 도시샤 대학 신학부를 졸업 한 후, 1948년 오사카니시나리 교회 전도사로 취임. 오사카니시나리 교회의 전후(해방 후) 최초의 교회당 건축에 분주. 1949년~1951년, 캐나다 토론토 대학 녹스 신학원에서 신학 연구 후, 1952년 목사 안수를 거쳐 오사카니시나리 교회 목사 취임. 44년간 오사카니시나리 교회를 목회하고, 1992년 원로목사로 추대.

1952년에 초대 청년국장으로 선출되어 총회의 청년회 육성에 노력했다. 일본 교회의 아슈람 기도집회를 간사이지방회에 도입하거나 오사카 케츠의 컨벤션에서 한국인 강사의 통역 봉사를 맡는 등 일본교회와의 초교파 선교에도 힘을 쏟았다. 1992년 오사카교회의 고 김덕성명예목사들과 함께 일본선교협력회 설립에 진력했다.

복음신문 4월호 휴간의 알림

사정에 따라 복음신문 2023년 3월호를 휴간합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유스 프로그램 참가하여 정 시 온

오키나와 에큐메니칼 평화센터가 주최하는 제1회 유스 프로그램이 2월 19일(월)~22일(목)에 오키나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8회 9조 세계종교인대회에 참가하여 평화구축에 임하는 세계 종교인들을 만나고, 필드워크를 통해 평화를 추구하는 오키나와를 만나다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11명의 참가자들이 이 경험을 통해 보고, 듣고, 느끼고, 쏟아낸 평화 기도의 일부를 공유하고자 한다.

<유스의 평화기도>

전쟁으로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현재의 오키나와의 상황을 통해 배웠습니다. 인간이 전쟁으로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받아드리고 그 잘못을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대화를 통해 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폭력이 아닌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앞으로의 역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짊어지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이야말로 희망의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불 하나 하나는 작을지라도, 그 불이 모여 큰 불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세대로 희망의 불이 이어지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보고 배운 것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만들어 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은 어떠한 생명이든지 안심하고 살아 갈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헌법 9조와 아시아의 평화 ~오키나와의 기도~

「제8회 9조 세계 종교인 회의」에 참석하여

총간사 정 수 환 목사

일본의 '헌법 9조'를 얼마나 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을지. 그것을 실감할 수 있는 귀중한 회의였다. 누구나 평화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유사 이래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나 분쟁이 끊긴 적은 없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슬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그에 대해 과격할 정도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공격을 가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미얀마 군사 정권에 의한 민중 탄압. 하지만 이런 무력에 의해 자신의 뜻과 주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무력에 의해 타인을 압도하고 굴복시키려 해 온 권력자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결국은 다른 권력자의 무력에 의해 멸망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슬람 하마스 조직과 이스라엘의 공방, 미얀마 군사 정권에 의한 민중 탄압은 수많은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사람들의 생활을 파탄으로 내모는 등 다양한 입장과 관점에서 언급되었다.

또한 오키나와는 태평양 전쟁 말기 때 일본 본토 결전의 시간을 벌기 위한 '버려진 돌'로 여겨져 많은 주민을 끌어들여 지상전이 벌어졌다. 일본군에 의한 주민의 학살, 군의 명령으로 인해 강제 집단사가 섬 곳곳에서 일어났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전쟁후에는 미국에 의해 군사 점령이 이어져 오키나와는 태평양의 '모퉁이돌'로 미국에서 자리매김했다. 본토 복귀 후에도 일본 국토의 0.6%밖에 없는 오키나와에 약70%의 재일 미군 시설이 집중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의 기지 부담 경감을 입에 담고 있지만, 실태는 세계적으로 귀중한 자연을 파괴하여, 기지나 군비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오키나와는 정부에 의

해 전쟁 말기 '버려진 돌'로 여겨졌고, 전쟁후에는 미국에 의해 '모퉁이돌'이 되었다. 오키나와는 힘 있는 사람들에게 이용되어 「돌」이라고 표현되어 왔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춧돌이라" (이사야 28:16). 하나님께서 굳게 정해주신 기초는 <평화>이며, 오키나와는 그 귀한 기춧돌로서 하나님의 눈에 가치 있는 것으로 비쳐져 있을 것이다.

일본은 패전으로 그 사실을 실감하고 기억에 남기고 후대에 전하기 위해 <헌법 9조>를 제정했다고 믿는다. 그것은 동아시아 국가들을 위한 속죄로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9조 세계 종교인 회의>에서 이를 다시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었다.

(일부 <9조 세계 종교인 회의> 성명문 참고)



부활 단상

이 해 인

세상은 무겁고 죽음은 어둡고 슬픔은 깊었습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 눈물 흘리던 시간 위엔
 고통의 상처가 덧나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 당신이 오시어 우리를 부르십니까.
 두렵고 황홀한 번개처럼 오시어
 우주를 흔들어 깨우시렵니까.
 차가운 돌무덤에 갇혔던 당신이 따뜻하게 살아오시어
 세상은 잃었던 웃음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기뻐서 하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순간들이
 부활의 흰 꽃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날마다 조금씩 아파하는 인내의 순간들이
 부활의 흰 새로 날아오르게 하소서
 예수께서 직접 봄이 되고 빛이 되어 승리하신 이 아침
 아아, 이젠 다시 살아야겠다고
 풀물이 든 새 옷을 차려입는 처음의 희망이여, 떨림이여.....

常任委員会 招集公告

第57回總會期 第1回常任委員會
 を以下のように招集いたします。
 日時：2024年4月9日(火)
 11:00 ~ 18:00
 場所：在日韓国基督教會館(KCC)
 大阪市生野区中川西2-6-10
 (TEL: 06-6731-6801)
 *各地方會、委員會は2023年9
 月1日~2024年3月31日の報
 告書を3月31日までに送って
 ください。

2024年2月26日

總會長 梁榮友
書記 李明忠

女性會各地方定期大會案內

<關東地方教會女性連合會 第72回 定期大會>

・日時：2024年3月20日(水) 10:00
 ・場所：東京教會
 東京都新宿區若宮町24、TEL03-3260-8891

<中部地方教會女性連合會 第64回 定期大會>

・日時：2024年4月11日(木) 11:00
 ・場所：名古屋教會
 名古屋市中村區名駅2-39-11、TEL052-541-1980

<關西地方教會女性連合會 第71回 定期大會>

・日時：2024年3月23日(土) 10:30
 ・場所：京都教會
 京都市右京區西院北矢掛町20、TEL075-311-5051

<西部地方教會女性連合會 第36回 定期大會>

・日時：2024年4月11日(木) 11:00
 ・場所：武庫川教會 尼崎市稻葉元町3-10-7、TEL06-6417-0563

<西南地方教會女性連合會 第672回 定期大會>

・日時：2024年4月27日(土) 13:00
 ・場所：小倉教會
 北九州市小倉區北區大田町14-31、TEL093-521-7271

<公告> 2024年 總會獎學生 募集案內

總會神學生として各地方會にて認定され、1年を経過した者が申請できます。申請書類は總會事務局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 募集人員：3名
- 支給金額：年額 200,000 円 / 1人
- 支給期間：1年間(受給者は、継続して新たな申請必要)
- 必要書類：①奨学金申請書 ②在学証明書 ③成績証明書 ④履歴書 ⑤堂會長推薦書 ⑥總會神學生認定書(各地方會試取部) ⑦各地方會會長承認書
- 締め切り：2024年4月30日必着 ※書類提出先：總會事務局

韓日対照讚頌歌販売



韓国の新讚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対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 B6版変型・1483ページ
 - 価格：2,500円
(消費税・送料込み)
- ※お求めは總會事務所へ

韓日対照聖書販売



各ページの左に韓国語(改革改正訳)、右に日本語(新共同訳)が掲載されています。

- A5版変型・1760ページ、革製
 - 価格：4,000円(消費税・送料込)
- ※お求めは總會事務所へ